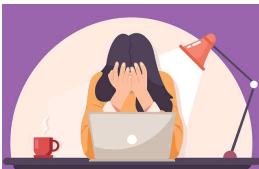




서른두번째 이야기

고난 속의 소망

[친밀하심을 따라 ⑱-OBA 후기]



최근 7년여의 삶의 고난 중에 답이 없는 내 가정, 끝도 없는 내 상황에 지쳐 울해 초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개강 며칠 전에 막차에 오르듯 OBA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검증된 성경 공부라고 하여 참여했고, 이 과정이 BEE 기본과정이라는 것도 중간쯤 지나서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세미나는 논증과 변론의 내용이 많아 조금 어려웠고 과제의 부담도 있어서 중간에 그만 할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말씀을 알아가며 얻는 소소한 은혜와 인도자님과 학생들과의 소통 속으로 로마서와 그리스도의 삶까지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의 방학이 끝난 후 시작한 ‘그리스도의 삶’ 세미나는 저의 마음을 계속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와 과정’에서 영적 성숙이란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신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적 성장에서 하나님의 역할’에서 과제를 준비하면서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영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임을 깨닫고 절망

의 삶에 새로운 동력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이미 최대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순종을 통해 성장을 위한 은혜를 받고, 그 감격과 함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고 싶은 소원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신뢰의 확신이 생기게 되니, 이제는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제 안에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 안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경건의 우선순위’에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며 성숙의 표시라는 것과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최선을 선택하고 행하는 의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경외감에 대해 인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 계속 자라고 싶은 거룩한 열망은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는 고난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저를 향한, 제 한계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즉 죄로 인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저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신앙 가운데 제가 태어났고 교회에 몸을 자연스럽게 담았을 뿐 저는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를 다닐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중2 겨울 수련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였고, 결혼 직후인 30대 초반에 주님 중심으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십하고도 돌이 되는, 37년의 세월이 걸려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함이 생기고, 그분을 의지하여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보다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그분을 의지하는 여정을 계속하려 합니다.



세미나를 마칠 즈음에 가장 기쁜 것은 아들에게 이제는 언제든지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말로 격려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죄와 환경으로 인한 지루한 길을 만나고 알 수 없는 곤고함 앞에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다시 일어서 꺾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글쓴이 하종아 집사]



잠시 목동에 있는 로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BEE를 통해 중년 이후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가정의 문제로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베풀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다. 동갑인 남편과 군 복무 중인 아들 하나가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선교지  우간다



[도시 -나일강의 발원지, 진자(Jinja)]

‘진자(Jinja)’는 그 의미가 무당들이 동물 제사를 지내는 ‘돌반석’이라는 뜻이다. 이 지역 해발1,133미터에 위치한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일강이 발원하여 남에서 북으로 흘러 지중해로 흘러간다. 나일강의 근원(Source of Nile river)을 바라보며 무당들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 종교인들이 이곳을 신성시 여겨 제사들을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곳은 관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전투가 요구되는 곳이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2. 12월 6일(월) 저녁 7:00 서빙고 한동홀! 2021 Blessing BEE Korea! 올해 주신 은혜를 나누며 2022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 BEE 가족 모두 초대합니다.
3.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준비된 겨울방학 특강! '상한 마음의 치유', '교리론2', '성경을 펼쳐라2' 지금! 홈페이지로 Go Go~



입소문이 자자한 BEE Korea

겨울방학 특강

상한 마음의 치유 : 1월 4일 ~ 2월 22일 (선수과목 없음) 30,000+택배비(4,400)
 교리론2 : 12월 13일 ~ 2월 28일 (선수과목 갈라디아서) 40,000+택배비(4,400)
 성경을 펼쳐라2 : 1월 8일 ~ 2월 26일 (선수과목 없음) 35,000+택배비(4,400)

4. 'BEE수'와 함께한 로마서 8장 암송 복습 완료!
 말씀과 함께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33-39절 정답을 보내주신 고** 집사님께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